

연변대학 문보옥교수 은퇴 기념 독창회

연변대학 성악 부교수이자 저명한 소프라노 가수인 문보옥교수의 독창음악회가 4월 30일 오후 연변대학 예술학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문보옥교수의 6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그녀의 교직 생활 마지막 독창 공연으로 교직원, 학생, 음악계 인사 및 귀빈들이 참석해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다.

음악회는 우아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시작되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문보옥교수는 오페라 아리아 〈L'altra notte(그저께 밤에, 우리 아가)〉를 첫 곡으로 선보이면서 려이어 〈Ebben, n andro(그럼, 난 먼곳으로 가네)〉 등 총 일곱곡의 아리아를 열창했다.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테크닉, 정교한 표현력은 관객들을 사랑과 고뇌가 교차하는 예술의 세계로 이끌었다. 피아노 반주와의 완벽한 조화는 곡의 깊이를 더했으며 현장에는 감동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공연 중간에 문보옥교수의 제자들이 오페라 아리아 〈O mio babbino caro(아! 사랑하는 아버지)〉 등 곡을 열창하며 스승에게 경의를 표했다.



음악회 후반부에 문보옥교수는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강〉, 〈아리랑 사랑〉 등 예술가곡을 미성으로 재해석해 전통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음악회는 관객들의 열띤 박수와 축복 속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음악회는 문보옥교수의 교직 생활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다. 문보옥교수는 현재 길림성음악가

협회 성악학회 리사, 연변음악가협회 리사로 활동중이다. 1989년 연변대학 예술학부를 졸업한 후 2001년 한국 숙명여자 대학 석사학위(연변지역 최초 성악 석사)를 받았고 2016년 한국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시드니 올림픽 축구 예선 개막식(한국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중국국가〉를 독창한 최초의 아티스트로 주목

받았고 주한 중국대사관 건국 50주년 기념식에서 공연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다. 2007년—2011년에는 ‘두만강 시리즈 음악축제’ 등 국제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고전에 경의를’ 전국성악경연 심사위원(2023-2024)을 역임했다. 선후로 ‘할빈여름음악축제’ 은상(2002), 한국 인성교육대상(2015) 등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고 서울 금호콘서트홀과 연변대학 등에서 여러 차례 독창음악회를 열었다.

문보옥교수는 “음악은 제 일생의 신념이었습니다. 퇴직을 기념하면서 열린 음악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 노래에 벨칸토 등 과학적인 우수한 성악 발생법을 도입시켜 예술적으로 더 갖추어지고 다듬어진 발생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래에 관심있는 분들과 좋아하는 분들에게 재능기부로 보급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김파기자



길림성박물관에서 만나보는 여성생활상 전시회



박물관내에 전시된 소장품들

길림성박물관 1층에서는 현재 여성 각성을 주제로 한 ‘풍조와 변혁—근대 백년 중국 여성 생활 형태 스케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전시회에서는 가정, 몸단장, 배우며 일하기 등 세가지 각도로 154점의 옛 생활용품들을 통해 중국 여성들이 어떻게 봉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

와 평등을 추구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이중에 가장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전시품으로 명청시기의 푸른색 비단 자수 꽃무늬의 뽕죽코신과 민국시기의 치포를 들 수 있었다. 4월 24일에 개막된 이번 전시회는 7월 7일까지 지속된다.

/ 주동기자



〈사계절의 노래〉로 그리는 민족단합의 새 장



공연 출연자들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가 정성들어 준비한 2025년판 〈사계절의 노래〉가 지난 4월 30일 연길시 문화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공연 현장은 만석이었으며 관객들은 박수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예술의 향연을 함께 즐겼다. 이로써 〈사계절의 노래〉 공연 시즌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중국 조선족 민족풍정 시화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조선족 고전예술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 화려한 무대 효과와 깊은 문화 내포를 결

합시켰다.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적 미감을 완벽히 융합하여 ‘가무의 고향’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관객들에게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문화적 풍경을 선사하였다.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측은 앞으로도 예술을 매개로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며 세계가 가무를 통해 중국 문화의 심후한 내포를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동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영화의 극본을 쓴 김길자할머니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5.1절 현재 작품으로 제작한 51분 분량의 다큐미니영화 《할머니와 손자》 시영식이 지난 4월 30일에 룡정 성수통산강양타운에서 있었다. 김길자 극본, 손룡호 감독으로 된 이 영화는 81세 김길자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의 빈자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진솔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할머니와 손자》는 김길자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리혼하고 출국하면서 남겨진 어린 손자를 키워 대학에 보내기까지의 근 18년 동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손자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할머니와의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었다. 영화는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하에 손자 지림이가 명문대학인 중국인민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할머니와 나누면서 감동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발표회에서 김길자할머니는 “이 영

화가 부모의 리혼과 출국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독과 제작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룡호 감독은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책임을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의 주제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다. 출국과 리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과 방황, 그리고 할머니 세대의 희생을 통해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소설가 홍천룡은 “영화는 감동이 있고 사색을 불러일으키며 추억 속에

잠기게 한다.”면서 “젊은 부모들에게 자식을 위한 경제적 지원보다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는 마땅히 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1급 영화감독인 리창균은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가 감동이 있고 심금을 울리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까지 기울인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긴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화 제작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헌신이 빛났다. 연길시북대악기유치원의 박명순 원장은 어린 배우를 적극 추천했고 연변 1중과 연길강북악고기캠프점 등 여러 부문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서 촬영 장소와 배역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적 협력력이 영화 완성에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김길자 할머니의 실제 연기는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영화에 진정성을 더했다.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손룡호 회장은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변에는 감동적인 영화소재들이 너무 많다. 향후 이런 내용들을 적극 발굴해 가치있는 영화로 만들어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는 것으로 협회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항일유격근거지 내두산촌 찾아 뜻깊은 문화교류 활동

연변정음문화교류중심(원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안도현 이도백하진 내두산작가촌을 찾아 항전 승리 80주년 기념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변지역 최후의 항일유격근거지였던 내두산촌에서 내두산항일기념관과 내두산민속박물관을 참관하고 내두산항일유적비를 답사한 후 내두산촌 회의실에서 연변대학 김호웅교수의 항전문학특강을 청취했다. 이어촌민들과 함께 농가 음식을 즐기면서 근거지에 깃든 항일 이야기로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연변정음문화교류중심에서는 또 특별히 내두산촌을 위해 창작한 신곡 〈내두산 가지〉(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를 이촌에 증정하여 촌민들의 문화 건설을 지원하였다. 1935년 11월, 항일투쟁 형세의 수



내두산 항일련군밀영 안내비를 찾은 부분적 참가자들

요에 근거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장 왕덕태의 명솔하에 군부와 제2단은 처창즈항일유격근거지에서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토벌’을 분

쇄한 후 내두산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근거지를 장건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군부와 탄부 그리고 병기공장, 피복공장, 인쇄공장, 근거지병원

등 후근기관이 있었다. 1936년 1월말, 왕덕태는 2개 련의 작전부대와 후근인원들을 지휘하여 800여명 적들의 ‘포위토벌’을 분쇄하였다. 일본놈들의 빈번한 ‘포위토벌’과 봉쇄로 근거지 군민들의 급양이 결핍하게 되자 1936년 3월 제2군은 내두산근거지를 포기하고 남만으로 전이하였다.

이런 유서깊은 마을에 갈림백천문화미디어유희회에서 2016년에 내두산작가촌을 설립하여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있다.

이날, 30여명 참가자들은 왕덕산자락에서 산나물 채집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도백하유보도와 미인송공원을 답사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 김태국기자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 발표!

2024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이 일전 북경에서 발표된 가운데 사천 자양몽계하유적군, 절강 선거하탕유적지, 감숙 림조사와유적지, 서장 캄마마취유적지, 호북 황파반룡성유적지, 섬서 보계주원유적지, 북경 방산유리하유적지, 안휘 회남무왕둔 1호묘, 운남 진녕하백소유적지, 신강 카슈미르사원유적지가 선정되었다.

2024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에 선정된 항목들은 지난 1년간 전야(田野) 고고학 작업의 두드러진 대표로 인류 기원, 중화문명 기원 형성 및 초기 발전 과정, 하상주(夏商周) 고고학, 통일된 다민족국가 형성 및 발전, 불교고고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바 중화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한층 더 실증하고 있다.

/ 인민넷



삼채 문화창의의 제품